



대선 전국 민심 기행

상 수도권·충청권·전북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지역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은 대선을 50여 일 앞둔 각 지역의 표심을 살펴보기 위해 '대선 민심 기행'을 마련했다. 각 지역 정치부 기자들이 시장이나 공원, 대학, 기업체 등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나 포착한 민심을 ▲수도권·충청·전북 ▲영남·강원·제주 등 두 차례로 나눠 연재한다.

“아직은 관심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지”

■ 수도권

◇ 인천=인천은 특별한 지역색깔이 없다. 충청·전라·경상도 출신들이 고르게 어울려 사는 탓이다. 대선 민심도 그렇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독 인천의 민심을 주시한다.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천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의외로 답은 간단했다. “대선에 관심 없다”였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글쎄요”라며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지난 25일 오전 부평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았다. 인천토박이라는 운전기사 김모(49·남구 주안동)씨는 “마땅히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을 뱉었다. “이명박씨는 서민적인 이미지가 없어서 왠지 거부감이 들어요. 정동영씨는 경선과정에서 실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지지기반이 너무 없잖아요”

시청 옆 중앙공원에서 만난 전라도 출신 자영업자 장모(59·남동구 관교동)씨는 “한나라당 집권은 막아야지. 범여권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인천대에서 만난 학생들은 대선에 관한

“범여권이 하나로 힘 합쳐야 할텐데...” 이명박 후보 대세론 당분간 지속될 듯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다. 어렵사리 말을 연 박모(26)씨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진짜 뽑을 사람이 없지 않아요?”라고 되물었다.

◇ 경기=경기도는 역대 대선에서 승패를 나타내는 ‘리트머스지’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하지만 김근태 전 장관과 손학규 전 도지사 등이 대권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 ‘경기도 출신 대통령 배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대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태다.

대선 승패를 가르는 정치환경과 선거구도, 후보역량 등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이 후보 대세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이 후보에 절대 열세인 상황이다. 범여권이 신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으로 분열된데다 이들 당 후보 지지율을 합해도 한나

라당이 후보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당은 한나라당 이 후보의 도곡동 땅 투기와 실제 주인이 이 후보로 밝혀지고,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귀국으로 진심이 공개되면 중산층의 신도시 주민 등이 대거 몰려 있는 경기 남부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당과의 단일화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몰려 있는 안산과 성남, 부천 등지를 중심으로 이인제 후보의 지지도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이나 총선 경험 등을 토대로 권영길 후보가 경기도에서 만큼은 선전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갈수록 확산돼 단일화의 중심의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경인일보=임승재·전상천기자 isj@kyeongin.com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선 당시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충청권

‘충청인이 선택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충청인은 이기는 후보 쪽에 선다.’

어느 주장이 옳든 13~16대 대통령은 모두 충청권에서 승리했고, 오는 12월19일로 예정된 제17대 대선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8.3%에 불과한 충청의 민심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의 대결구도에서 충청 출신의 이인제, 심대평 후보가 각각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충청도민들은 ‘좀 더 두고 봐야지’라며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충청인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심대평 후보의 타 후보와의 연합여부다.

현실적으로 심 후보의 대선 완주 가능성은 낮다. 대전일보가 지난 10월1일 충청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 후보의 대선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47.0%)가 긍정적 평가(34.0%)보다 높았고, 지지율도 5.3%에 그쳤다.

심대평 후보 누구와 연대하나 최대 관심 이인제 바람·이회창 출마 여부도 변수

유력 후보와 연합이나 연대를 시도할 경우 ‘어느 후보와 연합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범여권 후보와의 연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한나라당과의 연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 후보가 한나라당과 연합할 경우 충청인은 이명박 후보에게 상당히 집중된 지지를 보이게 될 것이나, 범여권과 힘을 합칠 경우 충청의 표는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이재현씨(30)는 “심대평 후보가 지지도는 낮지만 충청지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지역민의 상당수는 심 후보의 선택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충청인의 선택에 또 다른 변수는 민주당 이인제 후보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 15대 대선에서 500만표를 가까운 득표

를 통해 차기 대권후보 1순위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다. 이 후보는 고향인 충청과 도지사 사를 한 경기도,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을 하나로 묶는 ‘서부벨트’ 구상을 밝히며 대권 행보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밖에 최근 대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행보도 지역민들에게는 커다란 관심이다. 이 전 총재의 행보는 충청 지역민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켜 이명박 후보 지지층의 분열을 조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충청지역에서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후보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 10월 대전일보의 충청인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는 45.0%의 지지를 받았다. 충청의 선택이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대전일보=한중구 기자

■ 전북

17대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표심 공략을 위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북이 텃밭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수성전략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가장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지역 민심은 한 마디로 지역출신인 정동영 후보의 ‘텃밭’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한때 지지를 하락으로 고전했던 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과정에서 80%를 웃도는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전북일보와 지역별 9개 대표 일간지가 정 후보가 신당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이명박 후보의 독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는 정 후보가 54.5%의 지지율로 이명박 후보(16%)를 크게 앞지르며 확고한 우위를 구축했다. 이 같은 지지율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소외 풀어줄 책임자 정동영”... ‘쏠림’ 가속 反한나라 정서 불구 이명박 상대적 선전

전북지역 민심의 ‘정동영 쏠림’ 현상은 단순히 지역출신에 대한 애정보다는,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려 도민들의 ‘한(恨)’을 풀어달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역 현안사업을 어느 후보보다 잘 알고 있는 정 후보가 그동안 전국은 물론 호남권에서도 소외받아 온 ‘한(恨)’을 풀어줄 책임자라는 것이다. 지역 내 깔려 있는 반(反)한나라 정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50여일동안 전북에서는 ‘아성’을 지키려는 정 후보와 무너뜨리려는 다른 후보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과 지역균형발전 공약, 로스쿨의 지방대학

유치 등 해결책을 모색하며 안정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 역시 도내 두자릿 수, 나아가 20%대 득표를 위해 새만금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 후보의 지지기반을 흔들려 놓겠다는 계획이다.

권영길 후보는 전북이 농도(農道)인 점을 감안, 농업을 국가 기간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농민과 노동자, 서민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으며, 이인제 후보는 호남·충청권과 수도권의 서부권 벨트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국민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의 개혁성장 표심에 적극 호소하는 한편 지역개발 비전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일보=조동식기자 chods@

Advertisement for the 2008 National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2008학년도 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featuring a smiling woman and a detailed list of university programs and application information.